

아시아 근현대사에 관한  
철학적 서사시

# 탈북자 The North Defectors

一座島是流離的，  
幾座島在一起才能相濡以沫

One island is floating,  
several islands with each other would make the power of  
solidarity.

하나인 섬은 떠돈다.  
여럿인 섬들은 서로를 보듬어 의지한다.

一座島是流離的，  
島與島之間才讓我們找到回家的路

One island is floating,  
the space between the islands would make us find the  
way home.

하나인 섬은 떠돈다.  
섬과 섬, 그 사이는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에 닿게 한다.

一座島的歷史是流離的，  
只有在島與島之間才能找到我們的歷史

History of one island is floating,  
only standing on the space between the islands would  
(let us) find our histories.

하나인 섬의 역사는 떠돈다.  
섬과 섬, 그 사이에 있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닿게 될 것이다.

작, 연출  
왕모린 王墨林 WANG Mo Lin (Taiwan)



음악  
왕명웨이  
王明輝 WANG Ming Hui (Taiwan)



영상  
오소우이  
區秀諭 AU Sow Yee (Malaysia)

- 예술감독 \_ 아오리춘 姚立群 YAO Lee Chun (Taiwan)
- 연출보 \_ 류아팡 劉雅芳 LIU Ya Fang (Taiwan)
- 기획 \_ 김성경 金聖敬 KIM Sung Kyung (Korea)
- 백대현 白大鉉 BAEK Dae Hyun (Korea)
- 왕영홍 王永宏 WANG Yung Hung (Taiwan)
- 영상 \_ 알리슨 코어 艾立森 Alison KHOR (Malaysia)
- 무대디자인 \_ 요시카와 소이치 吉川聰 YOSHIKAWA Soichi (Japan)
- 조명 \_ 장이친 張以沁 CHANG Yi Chin (Taiwan)
- 기술감독 \_ 슈첸젠 許宗仁 HSU Tsung Jen (Taiwan)
- 사진기록 \_ 슈핑 許斌 HSU Ping (Taiwan)
- 중국어 통역 \_ 이성한 李成漢 LEE Sung Han (Korea)
- 연광석 延光錫 YEON Gwang Seok (Korea)
- 일본어 통역 \_ 신정현 辛正鉉 SHIN Jung Hyun (Korea)

문의 \_ Tel 02. 3700.0829 / bible0729@googlemail.com  
입장료 \_ 현장구매 20,000원 / 학생 및 단체(20인 이상) 10,000원

주최  SSK남북한마음통량연구소

공동 주관      

후원    

# 탈북자 The North Defectors



2018. 6. 22 금 8:00 pm / 23 토 4:30 pm / 24 일 4:30 pm  
설치극장 정미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동진빌딩

# Cast

고준야오 高俊耀 KOH Choon Eiow, Malaysia



백대현 白大鉉 BAEK Dae Hyun, Korea



홍승이 洪承伊 HONG Seung Yi, Korea



청인젠 鄭尹貞 CHENG Yin Chen,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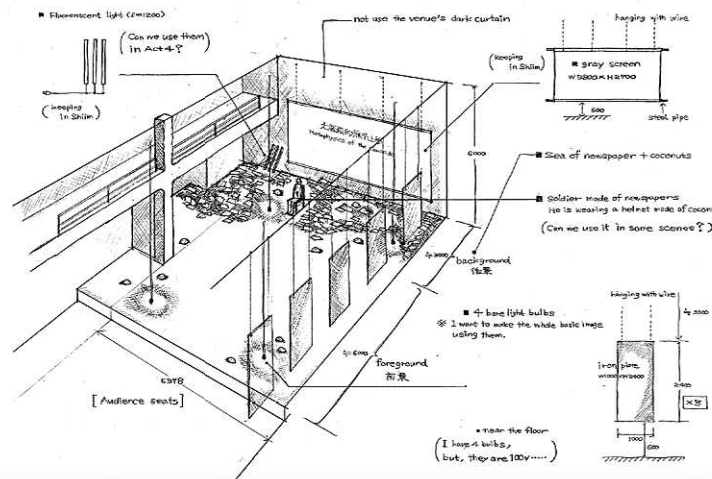
# Scene

장면 1 무지개 - 국가의 탄생  
 第一幕 彩虹 - 國家的誕生  
 Scene 1 Rainbow-the birth of state  
 충성과 배반 效忠與背叛 Loyalty and Betrayal

장면 2 전쟁 - 전쟁에 있어 북쪽의 기억  
 第二幕 戰爭 - 在戰爭中的北方記憶  
 Scene 2 War-the north memories in wars  
 학살 大屠殺 Massacre

장면 3 혁명 - 전쟁중 남쪽의 기억  
 第三幕 革命 - 在戰爭中的南方記憶  
 Scene 3 Revolution-the south memories in wars  
 집으로 가는 길 回家的路 The Way Home

장면 4 역병 - 학살의 형이상학  
 第四幕 瘟疫 - 大屠殺的形而上學  
 Scene 4 Plague - Metaphysics of Massacre  
 평범한 사악 平庸的邪惡 Banality of Evil



# "서울에서 보는 <탈북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한반도의 근대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려 했던 조선인 중 몇몇은 민족주의에 빠져들었고, 또 다른 몇몇은 인민의 해방과 평등을 꿈꾸며 공산주의를 선택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식민지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와 대리전의 양상을 띤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되게 이른다.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계속해왔다. 체제 경쟁은 비대한 국가 권력과 이념대립을 정당화하였고, 상시적 '예외상태'인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뿌리 뽑혔다. 간첩, 빨갱이, 종북,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북자' 라는 기표는 분단체제가 생산한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냉전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파괴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지금, 분단으로 비틀어져 버린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연극 <탈북자(脫北者, The North Defector)>는 한반도 맥락에서는 북을 떠나 남쪽으로 온 이들을 전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냉전기 사회주의와 인민의 낙원을 믿고 혁명에 동참했지만 결국 국가와 권력으로부터 배반당한 모든 이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어쩌면 냉전의 전선은 현존하는 유일한 분단국 남북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념과 국가를 뛰어넘고자 했던 모든 아시아인들의 몸과 마음에 여전히 현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대면하는 것은 식민과 냉전, 그리고 근대국가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는 아시아를 마주하는 것이다. 자유를 찾아 다시금 경계를 넘어 선 아시아의 모든 '탈북자'라는 존재는 분단국 남한과 북한, 그리고 아시아의 냉전에 틈새를 만들어내는 이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